

2024년 3월 3일. 3 March 2024  
금문교회 삼일절 105주년 기념주일에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7. But as for me, I will look to the Lord; I will wait for the God of my salvation;  
my God will hear me.

8. Rejoice not over me, O my enemy; when I fall, I shall rise;  
when I sit in darkness; the Lord will be a light to me.

9. I will bear the indignation of the Lord because I have sinned against him,  
until he pleads my cause and executes judgment for me.

He will bring me out to the light; I shall look upon his vindication.

10. Then my enemy will see, and shame will cover her who said to me,  
"Where is the Lord your God?"

My eyes will look upon her; now she will be trampled down like the mire of the streets.

미가 Micah 7:7-1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3월 첫째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105년 전 한반도에 "삼일만세운동"을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민족의 갈 길을 복음으로 밝힌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이 갈 길을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분열과 싸움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부르사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게 하셨으니, 주여,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사,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찬식. Holy 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27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28 Let a person examine himself, then, and s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29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discerning the body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고린도전서 11:23-29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테이블 앞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 이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널리 증거 합니다.

##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s!  
사도행전 Acts 22:1-21

1.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Brothers and fathers, hear the defense that I now make before you!"
2.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And when they heard that he was addressing them in the Hebrew language,[a] they became even more quiet. And he said: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드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I am a Jew, born in Tarsus in Cilicia, but brought up in this city, educated at the feet of Gamaliel[b] according to the strict manner of the law of our fathers, being zealous for God as all of you are this day.
4.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I persecuted this Way to the death, binding and delivering to prison both men and women,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as the high priest and the whole council of elders can bear me witness. From them I received letters to the brothers, and I journeyed toward Damascus to take those also who were there and bring them in bonds to Jerusalem to be punished.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As I was on my way and drew near to Damascus, about noon a great light from heaven suddenly shone around me.
7.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And I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ing to me,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And I answere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to me, 'I am Jesus of Nazareth, whom you are persecuting.'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Now those who were with me saw the light but did not understand[c] the voice of the one who was speaking to me.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And I said, 'What shall I do, Lord?' And the Lord said to me, 'Rise, and go into Damascus, and there you will be told all that is appointed for you to do.'

11.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And since I could not see because of the brightness of that light, I was led by the hand by those who were with me, and came into Damascus.

12.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And one Ananias, a devout man according to the law, well spoken of by all the Jews who lived there,

13.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came to me, and standing by me said to me, 'Brother Saul, receive your sight.' And at that very hour I received my sight and saw him.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And he said, 'The God of our fathers appointed you to know his will, to see the Righteous One and to hear a voice from his mouth;

15.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for you will be a witness for him to everyone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And now why do you wait? Rise and be baptized and wash away your sins, calling on his name.'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When I had returned to Jerusalem and was praying in the temple, I fell into a trance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and saw him saying to me, 'Make haste and get out of Jerusalem quickly, because they will not accept your testimony about me.'

19.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And I said, 'Lord, they themselves know that in one synagogue after another I imprisoned and beat those who believed in you.

20.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And when the blood of Stephen your witness was being shed, I myself was standing by and approving and watching over the garments of those who killed him.’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And he said to me, ‘Go, for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s.’”

샬롬!

오늘은 1919년 기미년 3월 1일, 만세운동 1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가 분단의 고난을 끝내고 통일의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5년 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교회가 민족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 지진, 환경, 이런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화-수요일 교도소 SPR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1:37-26:32는 특별합니다. 크게 보아 네 개의 “스피치”(speeches)가 있습니다. 그 스피치는 “변명”(defense, apology)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1. 21:37-22:29. 결박된 채. 유대인들에게. 천부장(tribune) 앞에서. 히브리어.
2. 22:30-23:30. 결박을 풀 채. 공회에서. 천부장 앞에서.
3. 23:31-24:27. 벨릭스 총독 앞에서.
4. 25:1-26:32. 손을 들어. 아그립바 왕, 베니게,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여태까지 제1-3차 선교여행 중, 선교사로서 회당이나 하우스교회, 서원 등 각지에서 “설교”하는 것과 달리,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변명”합니다.

“변명”은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이 “설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명은 일반 피의자의 변명과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썼던 그대로 “때를 얻지 못한 경우”에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소개한 바 네 개 스피치 중 첫 번째입니다. 천부장(tribune)의 허락을 받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명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1. 그는 자신의 배경을 말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고 했습니다.
2.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파송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로마 천부장(tribune)이 볼 때, 이것은 전혀 법에 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내에서 그들의 종교법에 관계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때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증거 한 것은, 그로써 그의 혐의를 벗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혐의를 벗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습니다. 과연 그는 죽기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 중의 괴수로서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길로 가던 우리를 부르시고,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복음을 증거 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날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복음증거의 길은, 한없이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주대토. 그렇게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대신, 적극적인 태도를 품어야 합니다.

22:6-11. 바울을 부르심에서 이사야(Isaiah)와 예레미야(Jeremiah)를 부르실 때가 연상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hineniy). 나를 보내소서(shelaheniy)!" 하였더니

And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I am! Send me!"

이사야 Isaiah 6:8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이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 But you, dress yourself for work; arise, and say to them everything that I command you. Do not be dismayed by them, lest I dismay you before them.

18 And I, behold, I make you this day a fortified city, an iron pillar, and bronze walls, against the whole land, against the kings of Judah, its officials, its priests, and the people of the land. 19 They will fight against you, but they shall not prevail against you, for I am with you, declares the Lord, to deliver you."

예레미야 Jeremiah 1:17-19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1.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Brothers and fathers, hear the defense that I now make before you!"

바울은 그를 죽이려던 자들을 형제들과 아버지들로 부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귀에 대고 말을 시작합니다.

문습니다: 이 열(effort)과 성(qualitative)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2.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And when they heard that he was addressing them in the Hebrew language,[a] they became even more quiet. And he said:

바울은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케어(care)하는 것입니다. 눈높이로 낮추어.  
그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드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I am a Jew, born in Tarsus in Cilicia, but brought up in this city, educated at the feet of Gamaliel[b] according to the strict manner of the law of our fathers, being zealous for God as all of you are this day.

나는. 바울은 자기를 열어 보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자였다.

여기 깔린 것은,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I persecuted this Way to the death, binding and delivering to prison both men and women,

내가 나를 죽이려던 여러분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as the high priest and the whole council of elders can bear me witness. From them I received letters to the brothers, and I journeyed toward Damascus to take those also who were there and bring them in bonds to Jerusalem to be punished.

여기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나는 여기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저 다메섹까지 갔다. 나는 공문을 받았던, 교회를 박해할 책임을 맡았던 자였다.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As I was on my way and drew near to Damascus, about noon a great light from heaven suddenly shone around me.

그런데, 가는 길에서. 시각은 정오쯤이었다. 한낮 빛이 가장 밝았던.  
그런데 더욱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참 빛”(the True Light)이십니다.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And I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ing to me,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나는 땅에 엎드려졌다. 말씀하는 소리가 있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사실 그가 하는 일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And I answere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to me, ‘I am Jesus of Nazareth, whom you are persecuting.’

나는 궁금했다.  
그분께서 밝히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Now those who were with me saw the light but did not understand[c] the voice of the one who was speaking to me.

내가 들은 그 소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목소리였다.  
동행하는 자들은 듣지 못했다. 나만 들었다.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And I said, ‘What shall I do, Lord?’ And the Lord said to me, ‘Rise, and go into Damascus, and there you will be told all that is appointed for you to do.’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교회 박해의 현장 다메섹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현장으로 바꾸신 주 예수님!

11.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And since I could not see because of the brightness of that light, I was led by the hand by those who were with me, and came into Damascus.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시력을 상실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지시했던 것이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자!

12.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And one Ananias, a devout man according to the law, well spoken of by all the Jews who lived there,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났다.

그는 율법으로 경건한 자였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다.

오늘 바울의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구자였다.

13.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came to me, and standing by me said to me, 'Brother Saul, receive your sight.' And at that very hour I received my sight and saw him.

아나니아의 말이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된 것이다!

나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And he said, 'The God of our fathers appointed you to know his will, to see the Righteous One and to hear a voice from his mouth;

아나니아의 말이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15.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for you will be a witness for him to everyone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이제부터 너는 증인이다.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 하는!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And now why do you wait? Rise and be baptized and wash away your sins, calling on his name.'

주저하지 말라!



일어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세례를 받으라!  
너의 죄를 씻으라!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When I had returned to Jerusalem and was praying in the temple, I fell into a trance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이었다. 황홀한 중에.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and saw him saying to me, 'Make haste and get out of Jerusalem quickly, because they  
will not accept your testimony about me.'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 증언을 듣지 않으리라!

19.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And I said, 'Lord, they themselves know that in one synagogue after another I  
imprisoned and beat those who believed in you.

내가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렸습니다.

20.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And when the blood of Stephen your witness was being shed, I myself was standing by  
and approving and watching over the garments of those who killed him.'

또 주님의 증인 스테반을 죽일 때 내가 찬성했습니다.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들이 모두 아는 일입니다.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And he said to me, 'Go, for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s.'"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루살렘, 유대인을 떠나,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이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던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땅 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파송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 소동에 대하여 지금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부장에게 당당하게 “변명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1-21의 내용을 한 줄기로 읽으면, 자기의 사상으로써 예수님과 그 몸 된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자기의 계획으로써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길을 막아 세우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그 뜻으로 바울의 사명을 삼게 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바울이 먼 데 이방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입니다.

자기중심의 거짓 열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 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1. 나는 유대인의 가르침을 따라 내 생각에서 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로서, 여러분과 전혀 똑같았다.
2. 여러분보다 더욱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갔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3.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셨다.
4.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먼 데까지 보내셨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다!

나를 내버려 두라!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밝히는 나의 길은 여러분의 길.

그 새로운 길을 걸으라!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이름 바울로 불리는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보다는 먼 데 이방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봅시다. 세상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을 세상일에서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마태복음 Matthew 4:19-20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세상일이었던 유대인 바울의 사역을 다메섹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제사장의 파송을 받던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 금문교회 예배실에서 듣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서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여태까지 잘 해왔고, 그대로 변화 없이 살아나가면 되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서(here and now)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유대인 회중 앞에 선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변명을 시작합니다. 이 변명에서, 최악의 길을 가던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세상일에 전념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증언해야 할 일입니다.

이 증언은 "변명"인데,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들을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마침내 그들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엄청난 영적 충격을 받았던 그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을 대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대하여 금문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복음사역을 위한 새 사명 주심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화-수요일, 나는 솔레다드 주립교도소(Soledad State Prison)에서 스페니시 수감자 형제들(Spanish inmate brothers)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솔레다드에서 형제들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삶을 여기서 멈추고, 새롭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것인지.

어떻게 교도소 밖을 나갈 것입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이 똑같은데. 내 새로운 결심이 실천할 장이 변화가 없는데?

이 모든 좌절이 섞인 질문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드리라고 나는 말하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절망뿐입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악의 길이 다메섹까지 연장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은혜의 빛으로써,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사명 감당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